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압타바이오 (293780)

APX-115, 가치 검증의 시간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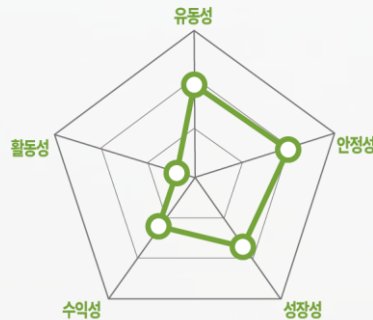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APX-115는 2H26 조영제 유발 급성 신손상 임상2상 결과를 시작으로 2027년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까지 주요 readout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긍정적 데이터 확보 시 임상적 de-risking과 L/O 기대 동시에 확대 가능
- APX-343A는 MSD와 Keytruda 병용 임상에 진입하며 전임상에서 확인된 CAF modulation 기반 ICI 병용 가능성을 실제 환자에서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 향후 임상 PoC 확보 여부에 따라 파이프라인 가치의 추가 재평가 가능
- 오브젝티브 편입으로 외형 성장은 이어지고 있으나 R&D 투자에 따른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만큼,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는 실적 개선보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와 기술이전 가시성 확대 여부가 될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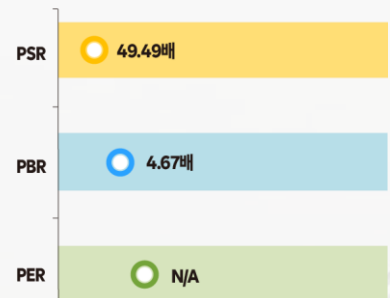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B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압타바이오 (293780)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이금민 km.lee@kirs.or.kr

KOSDAQ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NOX 저해제 및 Apta-DC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기업

동사는 NOX 저해제와 Apta-DC(Aptamer-Drug Conjugate)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장질환, 안과질환 및 항암 영역의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 NOX 저해 기술은 산화 스트레스 조절과 CAF modulation에 활용되며,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당뇨병성 신장질환 및 조영제 유발 급성 신손상(CI-AKI) 치료제 APX-115, 황반변성 치료제 ABF-101/103, 면역항암제 APX-343A 등을 보유. Apta-DC 플랫폼에서는 뉴클레오린을 표적하는 Apta-16을 R/R AML 치료제로 개발 중.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개발 이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화 전략으로 추진 중.

APX-115 임상 readout 본격화, APX-343A도 임상 검증 단계 진입

동사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가치가 순차적으로 검증되는 시기에 진입. 가장 가까운 catalyst는 2026년 10월 ASN에서 발표 예정인 APX-115의 CI-AKI 임상2상 topline으로, 긍정적인 안전성 및 2차 유효성 신호가 확인될 경우 APX-115의 임상적 de-risking과 기술이전 기대 확대. 이후 2027년에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대상으로 진행 중인 PROMISS-DKD 임상2b상 결과가 예정돼 있어 APX-115의 신장질환 치료제로서 재현성과 확장성을 추가로 확인할 전망. 동시에 APX-343A는 MSD와 Keytruda 병용 임상에 진입해 전임상에서 확인된 CAF modulation 기반 ICI sensitization 가설을 실제 환자에서 검증하기 시작 점에서 중장기적인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가능성을 보유.

펫사업 중심 외형 성장 지속, 기업가치의 방향은 임상 성과가 결정

인수한 오브젝티브의 펫제품 매출 기여에 힘입어 2026년 연간 매출액 45억원(+21.7% YoY), 영업손실 168억원, 지배주주 손순실 16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실적 측면에서는 당분간 R&D 투자에 따른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 이익 개선보다는 10월 APX-115 CI-AKI 결과, 이후 L/O 파트너링 가능성, 2027년 DN 2b상 및 APX-343A 병용 임상 진전 여부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 특히 기술이전 성과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실적 추정에 반영되지 않은 파이프라인 가치와 사업화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0	3	34	37	45
YoY(%)	N/A	569.8	937.8	100	21.7
영업이익(억원)	-95	-164	-189	-158	-168
OP 마진(%)	-19661.2	-5055.6	-561.0	-428.4	-373.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06	-121	-294	-163	-166
EPS(원)	-474	-532	-1,212	-607	-593
YoY(%)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4,909.8	633.4	45.9	68.1	38.6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4.5	3.4	3.2	5.6	5.7
ROE(%)	-20.2	-21.2	-50.8	-32.2	-42.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24)	6,180원
52주 최고가	10,420원
52주 최저가	4,000원
KOSDAQ (8/24)	813.33p
자본금	140억원
시가총액	1,736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0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억원
외국인지분율	1.51%
주요주주	이수진 외 3인
	27.2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1.3	-19.0	-21.5
상대주가	20.8	16.0	-24.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자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심장질환, 항암제 등의 혁신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바이오텍

압타바이오는 2009년 설립된 혁신신약 개발기업으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First-in-class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했다.

동사가 보유한 원천 플랫폼 기술은 ‘산화 스트레스 조절(Oxidative Stress modulation) 플랫폼’, ‘CAF Modulation 플랫폼’, ‘Apta-DC(Aptamer-drug conjugate) 플랫폼’ 3가지이다. 그중 ‘산화 스트레스 조절 플랫폼’과 ‘CAF Modulation 플랫폼’에 활용되는 NOX 저해제 기술은 선택적 NOX 효소 저해제를 도출해 당뇨병증, 섬유화증, 암, 심장질환 등 질병의 주요 원인인 활성화산소를 조절해 염증 및 섬유화를 억제하는 기전이다. 그리고 ‘Apta-DC 플랫폼’은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과 융합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세포 내에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이중항암작용을 일으키는 G-quadruplex Aptamer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동사가 이를 기반으로 발굴한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APX-115(DN&CI-AKI)’, ‘ABF-101/103(항반변성)’, ‘APX-343A(면역항암제)’, ‘Apta-16(혈액암)’ 등이 있다.

동사는 이처럼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 후 파트너사와의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사업화 모델로 하고 있는 한편, 별도의 신사업본부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동사는 2023년 신사업본부를 신설해 건강기능식품 OEM/ODM 사업에 진출했으며, 2025년 ‘오브제티보’의 자회사 인수 및 흡수합병을 통해 펩티드 유통사업을 내재화했다. 이처럼 동사는 신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 성장성 확보를 위한 신약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연혁

2009~2015	2016~2021	2022~
2009.07 법인 설립 2010.05 항암제 신물질 국내 특허 출원 및 PCT 출원 2010.11 Transfection agent, RNA extraction agent 제품 출시 2011.04 유전자 전달체 특허출원 2012.12 선도형 암 특성화 사업과제 선정 2013.05 암정복 추진 사업과제 선정 2015.06 6차 유상증자(Series A) 2015.12 첨단기술개발사업 미래제약 바이오 10대 특화 과제 선정	2016.03 Apta-12 L/O 2016.03 Apta-16 L/O 2016.06 7차 유상증자(Series B) 2018.05 APX-115 임상1상 진입 2018.08 습성 항반변성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12 APX-115 임상1상 투여 종료 2019.06 코스닥 상장 2019.08 APX-115, Eurofins Optimized와 제제 생산 계약 체결 2019.09 APX-115, Eurofins Optimized와 CRO 계약 체결	2022.07 APX-115(DN) 유럽 임상2상 Topline Data 수령 2022.10 호주 뉴캐슬대학 암연구센터와 난치성 항암 신약 개발 상용화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2022.11 APX-115(DN) 임상2상결과 미국 신장학회 메타분석(HCT) 구두발표 2023.01 APX-115(AKI) 미국 임상2상 IND 승인 2023.05 APX-115(AKI) 한국 임상2상 IND 승인 2023.08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2023.12 APX-115(코로나) 미국 임상2상 자진중단 2024.07 APX-343A, 키트루다 병용임상시험을 위해 MSD와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계약 체결 2024.12 APX-115(DN) 임상2b상 IND 승인 2025.06 APX-115(DN)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 2025.06 APX-343A 임상1상 IND 승인 2025.06 APX-343A FDA ODD 지정 2025.10 ABF-101 미국 임상1상 IND 승인 2026.03 APX-115 (AKI) 국내 임상2상 IND 변경 승인 2026.04 APX-115 (AKI) 미국 임상2상 IND 변경 승인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NOX 저해제 및 Apta-DC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장, 안과질환 및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동사의 주요 사업은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임상개발이고, **NOX(NADPH OXidase) 저해제 플랫폼**과 **Apta-DC(APTamer-Drug Conjugate)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장질환, 안과질환 및 항암** 영역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NOX 저해제 플랫폼은 산화 스트레스 조절(Oxidative Stress Modulation)과 종양미세환경 내 암연관섬유아세포 CAF(Cancer-Associated Fibroblast)를 조절하는 CAF Modulation으로 나뉜다. 산화 스트레스 조절 기술에서는 APX-115(Isuzinaxib)를 중심으로 당뇨병성 신장질환과 조영제 유발 급성신장손상(CI-AKI), 황반변성 및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CAF Modulation에서는 진행성 고형암 대상 면역항암제 APX-343A를 개발하고 있다. Apta-DC 플랫폼에서는 암세포 표면의 뉴클레오린(Nucleolin)을 표적하는 Apta-16을 재발 및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R/R AML)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NOX 저해제 플랫폼은 산화 스트레스와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신약개발에 적용

NOX는 세포 내 활성산소종 ROS(Reactive Oxygen Species)을 생성하는 효소군으로, 과도한 NOX 활성화는 활성산소 증가를 통해 염증과 섬유화 및 조직 손상을 유발한다. 동사는 NOX1~5와 DUOX1/2 등 개별 NOX isoform을 선택적으로 또는 복수로 저해하는 저분자화합물을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고 있다. 산화 스트레스 조절 분야에서는 NOX 저해를 통해 염증과 섬유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뇨병성 신장질환, CI-AKI, 황반변성 등을 타겟하며, 항암 분야에서는 CAF에서 발현되는 NOX를 조절해 면역억제성 종양미세환경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Apta-DC는 뉴클레오린 표적 aptamer와 치료용 약물을 접합한 항암 신약개발 플랫폼

Apta-DC는 특정 표적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핵산 기반 aptamer(Aptamer)와 치료용 약물을 접합한 플랫폼인데, 동사는 G-quadruplex 구조의 aptamer를 활용해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되는 뉴클레오린을 표적하고, 암세포 내부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항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파이프라인인 Apta-16은 뉴클레오린 표적 aptamer와 cytarabine을 결합한 후보물질로, 현재 R/R AML을 중심으로 임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 플랫폼 소개

플랫폼	NOX 저해제 플랫폼		
	Oxidative Stress modulator	CAF modulator	Apta-DC (Aptamer-Drug Conjugate)
작용 기전	산화 스트레스 조절을 통한 염증 및 섬유화 억제	종양 미세환경(TME) 내 암세포 관련 섬유아세포(CAF)를 억제하여 항암 효과 증대	Nucleolin 과발현 암세포 타겟
적응증	당뇨 합병증 (당뇨병성 신증, 황반변성 등)	고형암 (췌장암, 간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등)	난치성 암 (혈액암, 췌장암, 방광암, 간암 등)
임상 개발	임상 1상	임상 2/3상	임상 1상
	ABF-101/103 (황반변성)	APX-115 (DN, CI-AKI) APX-311 (MASH)	APX-343A (면역항암제)
			Apta-16 (혈액암, FDA허가의약품 지정)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요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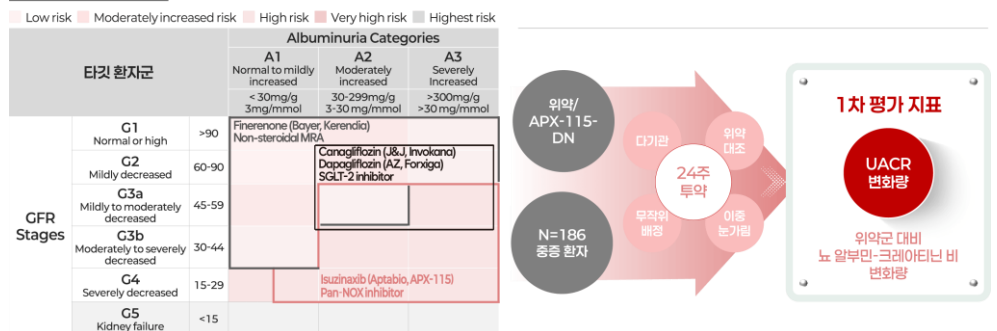
APX-115는 pan-NOX 저해제로
당뇨병성 신장질환 임상2b상 및
CI-AKI 임상2상을 진행

동사는 APX-115를 당뇨병성 신장질환 DN(Diabetic Nephropathy)과 조영제 유발 급성신장손상 CI-AKI(Contrast-Induced Acute Kidney Injury) 등 신장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전 유럽 임상2a상에서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APX-115 400mg 또는 위약을 12주간 투여했었고, 전체 환자군의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uACR(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감소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기저 eGFR 45mL/min/1.73m² 미만 환자군에서는 위약 대비 uACR 변화율이 47% 감소했으며(p=0.0197), 약동학 및 약력학에 따라 정의한 복약 순응군에서도 위약 대비 유의한 uACR 감소가 확인됐다. 후속 PROMISS-DKD 임상2b상은 2024년 12월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국내 약 20개 기관에서 당뇨병성 신장질환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임상으로, 1차 평가변수는 기저치 대비 uACR 변화량이다. 회사는 2025년 상반기 환자 투약을 개시했으며, 2026년 하반기 환자등록 완료, 2027년 투약 완료 및 탐라인 결과 발표를 개발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임상 2b상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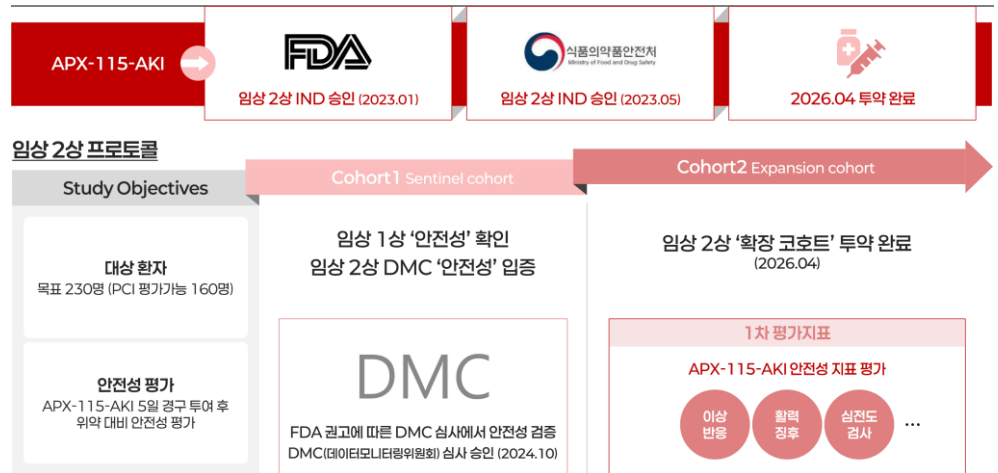
임상 2b상 프로토콜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PX-115-AKI는 관상동맥중재술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영제로 인한 급성 신장손상을 예방하는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다. 임상2상은 한국과 미국에서 PCI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APX-115를 조영제 투여 전후 총 5일간 투여하여, 초기 코호트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FDA의 DMC(Data Monitoring Committee) 권고에 따라 확장 코호트로 진행했으며, 2026년 4월 확장 코호트 투약을 완료했다. 본 임상은 예방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으로 7월말에 임상 완료 후 10월에 있는 미국신장학회 ASN(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에서 Top-line 데이터 발표 예정이다.

조영제 유발 급성신장손상(CI-AKI) 예방 치료제 임상 2상 소개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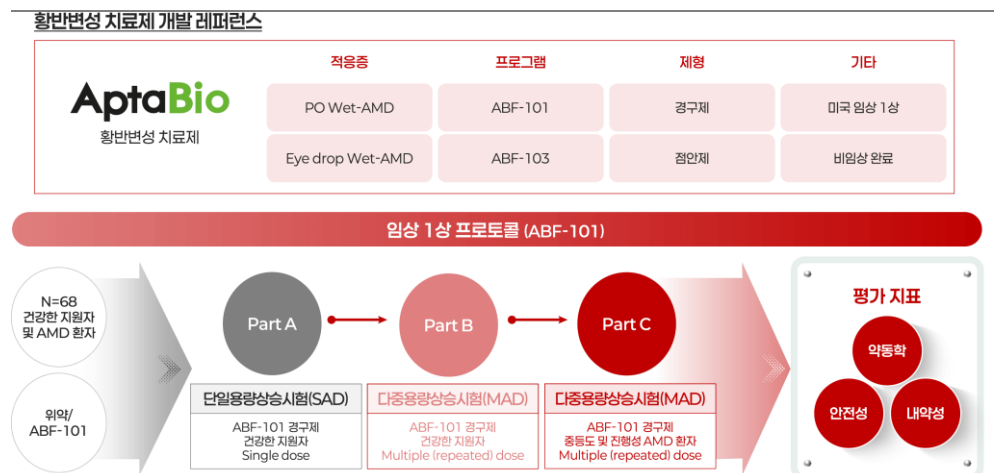
황반변성 파이프라인은

경구제 ABF-101과 점안제

ABF-103으로 개발 중

ABF-101/103은 NOX 저해를 통해 안구 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섬유화 및 신생혈관 생성을 조절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파이프라인인데, **ABF-101**은 경구제, **ABF-103**은 점안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ABF-101**은 미국 임상1상에 진입해 있다. 임상1상은 건강한 성인 및 AMD 환자를 대상으로 단회용량상승(SAD)과 반복용량상승(MAD)을 통해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ABF-101 임상은 2026년 2월 비임상시험 자료와 관련한 FDA의 보완 요구로 일시 중단됐으나, 보완 절차 이후 **2026년 6월 FDA가 Clinical Hold를 해제하면서 임상 재개가 승인됐다**.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 현황 소개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PX-343A는 NOX1,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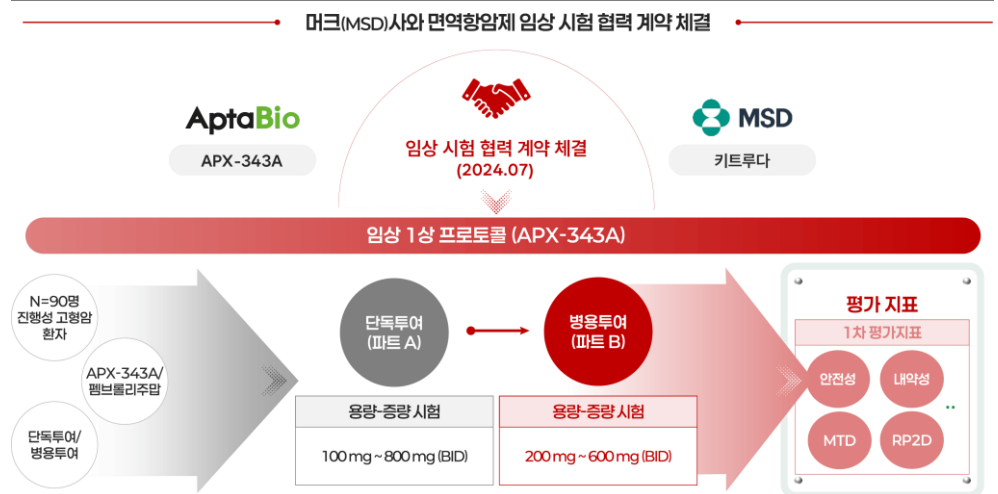
저해를 통해 CAF를 조절하는

면역항암제로 임상1상 진행 중

APX-343A는 종양미세환경의 **CAF**를 조절하는 **저분자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데, CAF는 섬유화 및 면역억제성 사이토카인 분비 등을 통해 면역세포의 종양 내 침윤을 제한하는데, APX-343A는 **CAF에서 발현되는 NOX1, NOX2 및 NOX4를 억제해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는 기전**이다. **AACR 2026 전임상 연구에서는 NOX1/2/4 저해 후 섬유화 관련 인자와 면역억제성 cytokine/chemokine 감소 및 CAF-rich 종양 모델에서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 항종양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동사는 2024년 7월 **MSD와 키트루다(pembrolizumab) 병용을 위한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6월 국내 임상1상 IND 승인을 획득했다. 임상은 최대 110명의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APX-343A 단독투여 Part A와 pembrolizumab 병용 Part B로 구성되며 MTD 및 RP2D, PK와 초기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APX-343A, MSD사와 면역항암제 임상 시험 협력 계약 체결 후 임상 1상 진행 중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pta-16은 뉴클레오타인 표적 Apta-DC 기반 혈액암 치료제로 R/R AML 대상 임상개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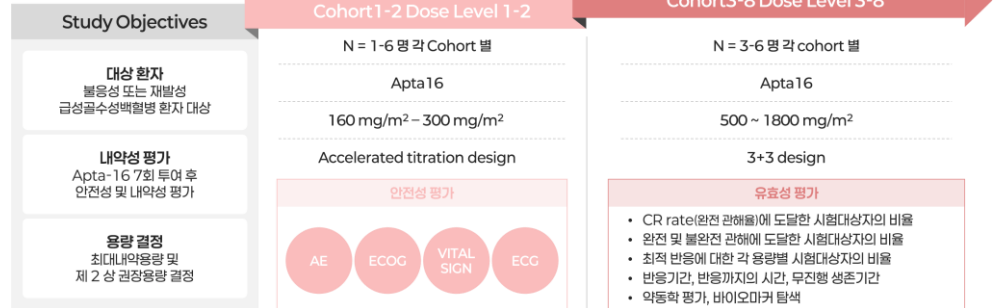
Apta-16은 암세포 표면의 뉴클레오타인을 표적하는 압타머와 cytarabine을 결합한 Apta-DC 후보물질로 급성골수성 백혈병(AML)과 골수형성이상증후 MDS 치료제로 개발돼 왔다. 2016년 삼진제약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획득했다. 현재는 **재발 및 불응성 AML을 중심으로 후속 임상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AACR 2025에서는 Apta-16이 뉴클레오타인을 통해 암세포 내로 유입되면서 cytarabine 내성과 관련된 hENT 및 dCK 의존적 경로를 우회하고 NCL-DNMT1 신호축을 조절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AACR 2026에서는 venetoclax 내성 AML에서 증가한 NCL-MCL-1 신호를 Apta-16이 억제하고 apoptosis를 회복시키는 전임상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다. 2026년 7월에는 R/R AML 대상 Apta-16 임상1상 설계가 ESMO 2026 포스터 발표로 채택되기도 했으며, 동사는 **2026년 하반기 투약 개시를 개발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Apta-16 혈액암 치료제 임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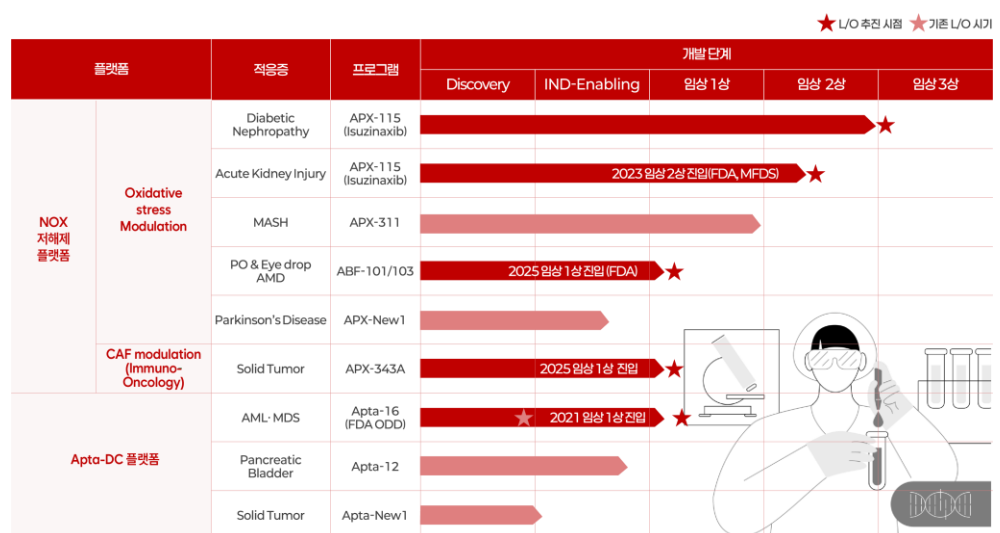


임상 1상 프로토콜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체 파이프라인 소개 및 L/O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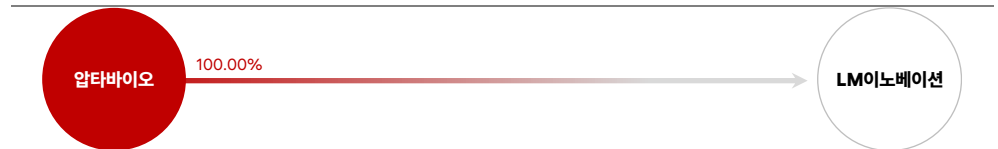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 회사

2026년 2분기 말 기준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LM이노베이션이 있으며, 지분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이다. LM이노베이션은 동사가 2023년 신약 연구개발 외 사업 확대 및 수익 다변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법인으로, 자산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종속 회사(2026.06.30)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4 주주 구성

2026년 2분기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이수진 대표이사로, 총 4,894,600주를 보유해 17.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문성환 사장이 8.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가족 문호상(지분율 0.85%), 문지권(지분율 0.07%)이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하면 총 7,647,161주로 전체 주식수의 27.2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 외로는 우리사주조합이 58,966주를 보유해 0.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 구성(2026.06.30)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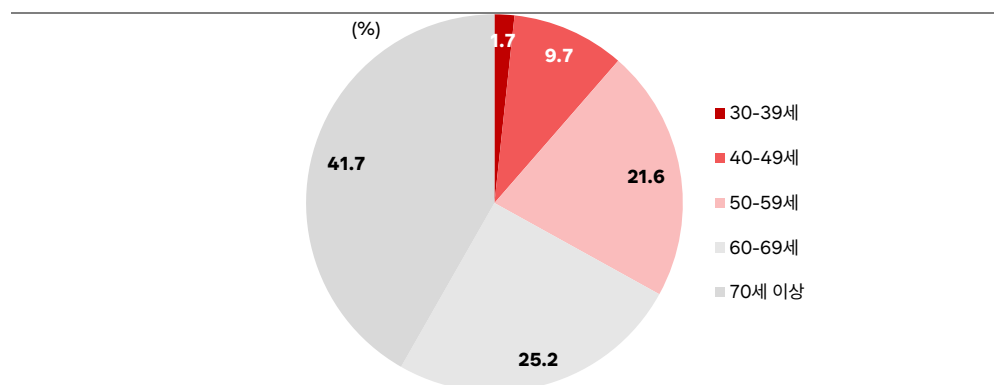
1 당뇨병성 신증 산업

당뇨병 및 고령화에 따른 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RAS inhibitor, SGLT2 inhibitor, nsMRA, GLP-1 RA 등 치료 옵션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잔존 신장 위험이 지속돼 신규 기전의 add-on therapy에 대한 개발 수요는 이어질 전망

당뇨병성 신증(DN)은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알부민뇨 또는 사구체여과율(eGFR) 감소를 특징으로 하며, 질환이 진행될 경우 만성신장질환 CKD(Chronic Kidney Disease)과 말기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당뇨병성 신증의 환자 기반은 향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는데, 국제당뇨병연맹 IDF(International Diabetic Federation)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20~79세 성인 당뇨병 환자는 약 5.89억명으로 추산되며, 고령화와 비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약 8.53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뇨병 환자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당뇨병성 신증을 포함한 당뇨병성 합병증의 질환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당뇨병성 신증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환자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한당뇨병학회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25.4%가 당뇨병성 신증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 수는 약 131만명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당뇨병 환자의 22.0%에서 알부민뇨가 확인됐고, 6.7%에서는 eGFR 60mL/min/1.73m² 미만의 신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성 신증 유병률은 30대 9.6%에서 60대 22.8%, 70세 이상에서는 37.3%까지 증가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 국내 당뇨병성 신증 환자의 약 66.9%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인구 고령화는 향후 당뇨병성 신증 환자 증가의 순차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연령대별 당뇨병성 신증 유병률



자료: Kim NH, et al.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2024;48(3):463-472,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당뇨병성 신장질환 치료는 과거 혈당 및 혈압 조절과 ACE inhibitor 또는 ARB 등 Renin-Angiotensin System(RAS) inhibitor 중심에서, 최근에는 신장질환 진행과 심혈관 위험을 동시에 낮추는 cardiorenal protection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SGLT2 inhibitor가 신장 보호 효과를 입증하면서 기존 RAS inhibitor 기반 치료에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non-steroidal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nsMRA)인 '케렌디아(finerenone)'와 GLP-1 receptor agonist가 추가되면서 서로 다른 기전을 조합하는 치료가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는

RAS inhibitor와 SGLT2 inhibitor를 기반으로 환자의 알부민뇨, 신기능 및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 nsMRA나 GLP-1 RA를 추가하는 layered therapy가 주요 치료 전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당뇨병성 신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치료 전략	주요 역할	당뇨병성 신증 치료에서의 위치
RAS inhibitor	사구체 내 압력 및 알부민뇨 감소	전통적인 기본 치료
SGLT2 inhibitor	CKD 진행 및 심혈관 사건 감소	현재 당뇨병성 신증 치료의 핵심 치료 가이드라인
nsMRA (Finerenone)	Mineralocorticoid receptor 억제	Residual cardiorenal risk 감소를 위한 추가 치료
GLP-1 RA	혈당 및 체중 조절 및 cardiorenal benefit	신장 및 심혈관 고위험 환자의 추가 치료
신규 기전 치료제	Inflammation, oxidative stress, fibrosis 등 조절	기존 치료 후 residual renal risk 감소가 목표

자료: ADA Standards of Care in Diabetes 2026,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다만 이와 같은 치료 옵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 당뇨병성 신증은 혈액학적 변화뿐 아니라 metabolic stress, oxidative stress, inflammation, fibrosis 등 다양한 병태생리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질환으로, 현재의 표준치료만으로 모든 질환 진행 경로를 충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당뇨병성 신증 신약개발은 기존 치료제를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표준치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알부민뇨와 신기능 저하 위험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규 기전의 add-on therapy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inflammation, oxidative stress 및 fibrosis와 같이 당뇨병성 신증 progression에 직접 관여하는 병태생리적 pathway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주요 타겟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RAS inhibitor와 SGLT2 inhibitor가 기본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은 만큼, 신규 치료제가 시장에서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과 경쟁하기보다 기존 치료에 추가했을 때 residual renal risk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당뇨병성 신증 시장은 다수의 유효 치료제가 존재해 진입장벽은 높지만, 동시에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 진행 위험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병태생리적 기전을 가진 병용 및 추가 치료제에 대한 개발 수요가 지속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투자포인트

1 2H26 CI-AKI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이어지는 APX-115 임상 모멘텀

2H26 CI-AKI 2상 결과를 시작으로 2027년 DN 2b상까지 주요 catalyst가 연속적으로 대기하고 있어, 긍정적 데이터 확보 시 APX-115의 de-risking과 L/O 기대감이 동시에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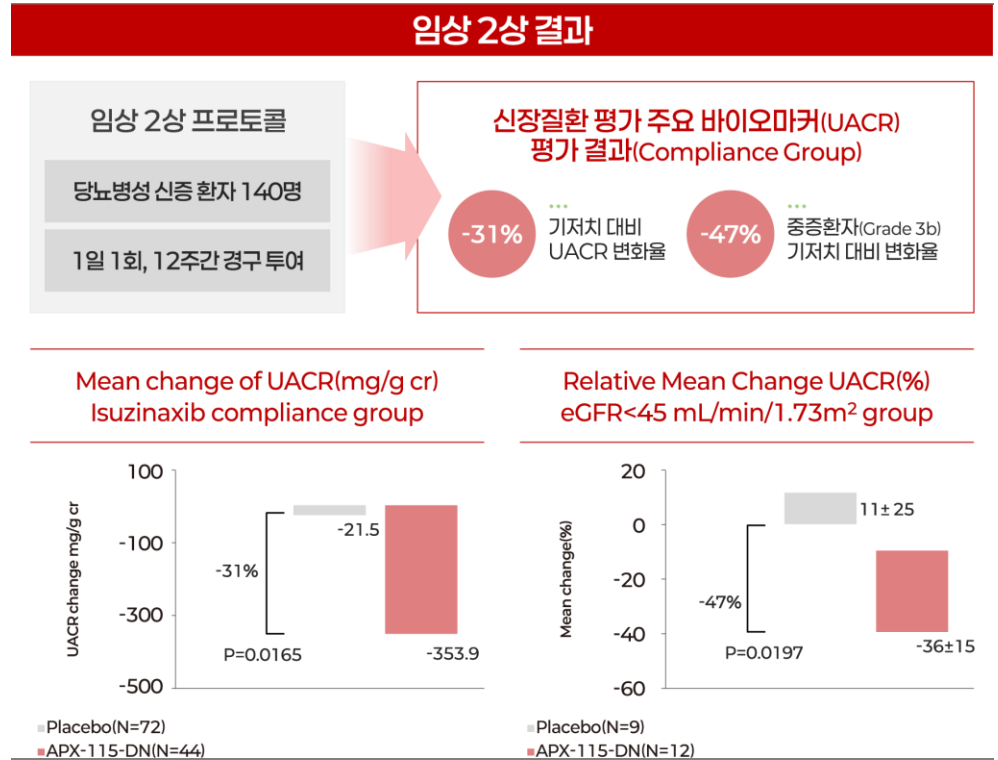
동사의 핵심 임상 자산인 Isuzinaxib(아이수지낙시브-APX-115)는 2026년 하반기부터 주요 임상 결과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시기에 돌입한다. 가장 가까운 catalyst는 조영제 유발 급성신손상(CI-AKI) 대상 글로벌 임상 2상인데, 본 임상은 PCI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APX-115-AKI를 5일간 투여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시험으로, 1차 평가변수는 12주간의 내약성이다. CI-AKI 발생률과 4주 및 12주 시점의 serum creatinine, eGFR 등 신기능 지표는 2차 평가변수로 설정돼 있다. 동사는 2026년 4월 환자 투약을 완료했으며 10월에 있는 미국신장학회 ASN(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에서 topline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APX-115는 과거 당뇨병성 신증 임상을 통해 이미 사람에서의 투약 경험과 내약성 데이터를 축적한 물질이다. 따라서 이번 CI-AKI 2상은 단순한 내약성 확인을 넘어, 2차 평가변수를 통해 NOXinhibition이 실제 환자에서 신장 보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신호를 추가로 확인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10월 ASN에서 긍정적인 topline 결과가 공개될 경우 APX-115의 임상적 de-risking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으며, 이후 11월 BIO-Europe에서 보다 강화된 임상 데이터 패키지를 기반으로 L/O 파트너링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주요 투자포인트로 고려해볼만 하다.

이번 CI-AKI 임상2상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1차 평가변수인 내약성이긴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secondary endpoint로 설정된 CI-AKI 발생률 및 신기능 관련 지표에서 유효성 신호가 함께 확인되는지가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시험은 efficacy를 primary endpoint로 검증하는 확증 임상이 아닌 만큼 긍정적인 2차 지표만으로 예방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이지만, 내약성이 재확인되는 가운데 APX-115-AKI 투여군에서 CI-AKI 발생 감소 등 일관된 유효성 신호가 관찰될 경우, 후속 임상개발의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APX-115의 임상 데이터 패키지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동사가 임상개발 이후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고, 바이오텍의 기술이전 가치는 개발 단계뿐 아니라 환자에서 축적된 내약성 및 유효성 데이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번 임상에서 의미 있는 signal이 확보될 경우 APX-115는 단순히 '임상개발 중인 NOX 저해제'에서 벗어나 복수의 신장질환 적응증에서 임상적 가능성을 축적해가는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기존 당뇨병성 신증(DN) 임상에서 확보한 환자 투약 경험에 CI-AKI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및 License-out(L/O) 논의에서 개발 불확실성을 낮출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H26 CI-AKI 임상2상 결과는 APX-115의 후속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partnering 및 L/O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주요 de-risking event로, 동사의 가장 가까운 임상 모멘텀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

CI-AKI 이후에는 당뇨병성 신장질환(DN) 2b상이 후속 모멘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 PROMISS-DKD 2b상은 중증 DKD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되고 있으며, uACR 변화를 주요 유효성 평가변수로 확인하고자 한다. 동사는 2027년 상반기 환자 투약 완료, 하반기 topline 결과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앞선 DN 2a상에서는 신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eGFR 45mL/min/1.73m² 미만 환자군 및 복약순응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uACR 감소 신호가 확인된 바 있어, 후속 2b상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중증의 DN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이번 2b상에서도 해당 신호가 더

큰 규모와 장기간 투여에서 재현되는지 여부가 향후 APX-115의 DN 개발 가치 판단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PX-115-DN 임상 2a상, 내약성 및 당뇨병성 신증 치료효과 데이터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따라서 APX-115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임상 가치가 연속적으로 검증되는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어, 2H26 CI-AKI 2상 결과가 단기 catalyst라면, 2027년 DN 2b상은 APX-115의 신장질환 영역에서의 확장성과 재현성을 확인하는 후속 catalyst다. 특히 CI-AKI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보될 경우, 이후 DN 2b상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APX-115의 임상 성공 가능성과 기술이전 가치를 선반영할 여지가 있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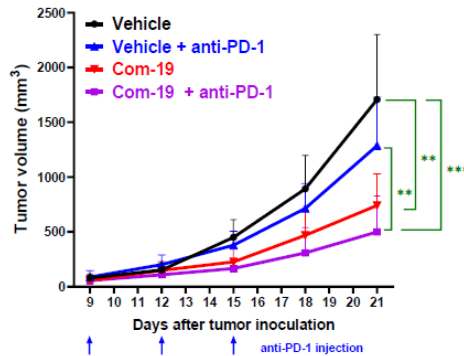
Keytruda 병용 임상 진입, APX-343A의 CAF modulation 임상 검증 시작

전임상에서 확인된 ICI 병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MSD와 Keytruda 병용 임상에 진입, 향후 임상 PoC 확보 여부에 따라 병용 파이프라인으로서 신약 가치 재평가 가능

동사의 항암 파이프라인 **APX-343A**는 종양미세환경 내 암연관섬유아세포 CAF(Cancer-Associated Fibroblast)를 조절해 면역관문억제제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의 항종양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이다. 기존 PD-1/PD-L1 억제제와 직접 경쟁하는 단독 면역항암제보다는 CAF에 의해 형성된 면역억제적 종양 미세환경을 변화시켜 기존 ICI의 반응성을 높이는 병용 파트너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미국암연구협회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2026에서 전임상 연구결과로 NOX1, 2, 4 억제 후 CAF의 섬유화 관련 인자와 면역억제성 cytokine/chemokine이 감소하고, CAF-rich 종양모델에서는 종양 내 CD8+ T-cell 침윤 증가와 함께 anti-PD-1 등 ICI 병용 시 항종양 효과가 강화되는 결과를 공개했다. 따라서 APX-343A의 개발가는 새로운 NOX 저해제 자체보다는 ICI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인 종양의 미세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병용 신

약 파이프라인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CAF-rich 종양에서 APX-343A의 in vivo 항암 효과



자료: AACR 2026 Abstract #1571,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최근 APX-343A가 전임상 단계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미국임상종양학회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2026에서 공개된 초기 단독투여 결과에 따르면 전임상에서 약효가 관찰된 수준의 drug exposure를 환자에서도 확보했으며, 당시까지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Grade 3 이상의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 항암 유효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임상 efficacy exposure에 상응하는 약물 노출을 확보하면서 병용 임상으로 개발을 확장할 수 있는 초기 PK 및 내약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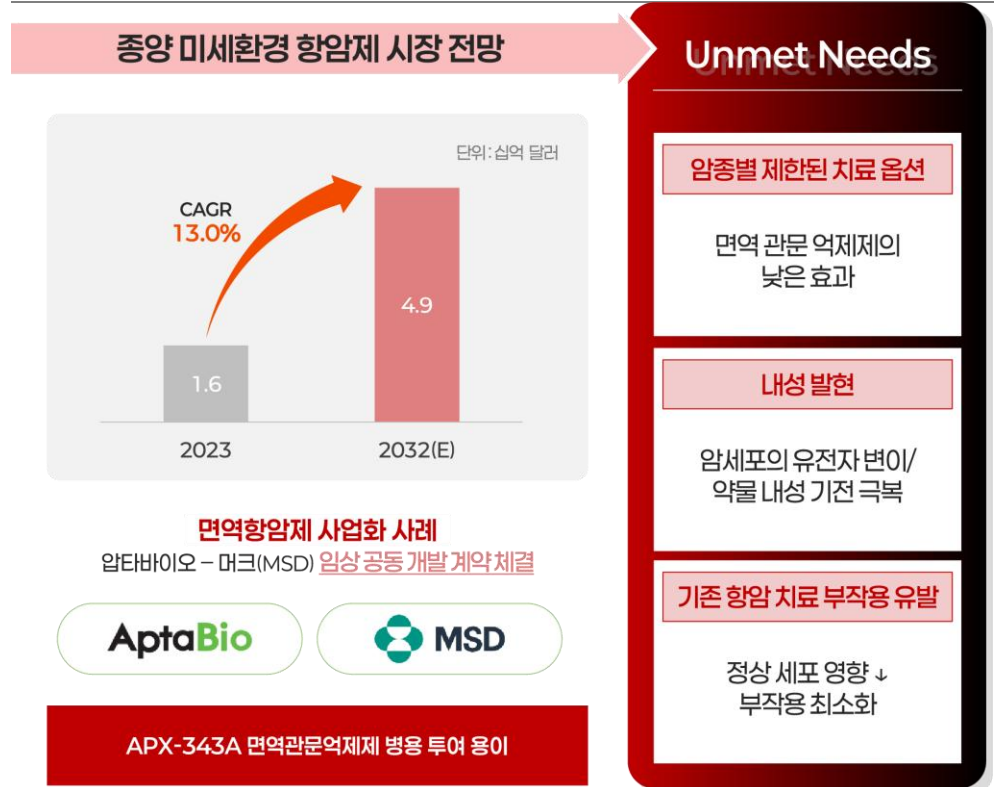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MSD(미국)와의 Keytruda(pembrolizumab) 병용 임상이 실제 환자 투약 단계에도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APX-343A의 후속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동사는 2024년 MSD와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계약 CTCSA(Clinical Trial Collaboration and Supply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동사가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MSD가 병용에 필요한 ‘Keytruda’를 공급하는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2025년 6월 국내 임상1상 IND 승인을 획득했고, 2026년 6월 Keytruda 병용군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MSD와의 협력을 곧바로 APX-343A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나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으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ICI 개발사인 MSD가 APX-343A와의 병용 임상에 합의하고 Keytruda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은, 적어도 APX-343A의 CAF modulation과 PD-1blockade 간 병용 rationale이 실제 환자에서 검증해볼 만한 개발 가설로 외부의 관심을 확보했다는 신호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전임상에서 CAF-rich, ICI 저반응 모델에서 병용효과가 확인되고, 실제 Keytruda 병용 임상으로도 연결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다.

현 시점의 APX-343A는 임상 유효성이 확인된 파이프라인은 아니지만, 전임상에서 제시된 CAF modulation 기반 ICI sensitization 가설을 환자에서 검증하기 시작한 high-upside oncology asset으로 고려된다. 향후 병용 임상에서 허용 가능한 내약성과 충분한 drug exposure가 유지되는 가운데 CAF 및 면역 관련 pharmacodynamic 변화와 초기 항종양 활성이 순차적으로 확인될 경우, APX-343A는 단일 고형암 치료제를 넘어 ICI와 병용 가능한 파이프라인

으로서 개발 및 partnering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면역항암제 APX-343A 압타바이오 & MSD 임상 공동 개발 계약 체결



자료: 압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리뷰

2025년은 오브젝티보 편입에 따른 외형 성장과 임상 관련 R&D 비용 감소에 힘입어 외형은 성장하는 반면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전년 대비 축소된 해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7억원(+10.0% YoY), 영업손실은 158억원(2024년 -189억원), 지배주주 당기순손실은 163억원(전년 -294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에는 2025년 4월 인수 후 6월 흡수합병한 프리미엄 펫용품 업체 오브젝티보의 신규 매출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 2025년 연결 매출 가운데 오브젝티보의 펫용품 제품매출은 약 22억원, 건강기능식품 ODM 매출은 약 14억원을 기록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임상 관련 연구개발비 감소가 영업적자 축소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2025년 경상 연구개발비는 105억원으로 2024년 146억원 대비 약 41억원 감소했고, 특히 위탁용역비가 125억원에서 79억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배주주 당기순손실은 영업적자 개선에 더해 일부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과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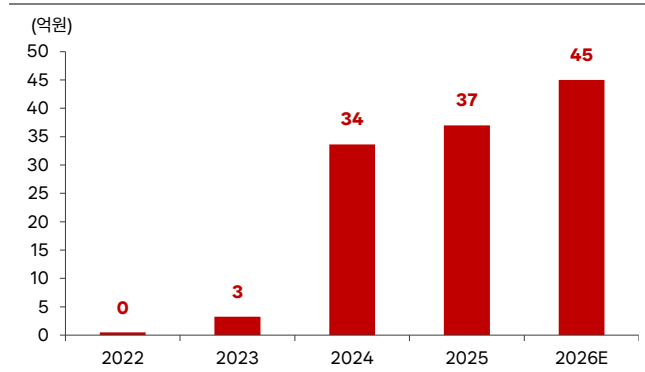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은 오브젝티보의 온기 실적 반영으로 매출액의 외형 성장이 예상되나,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개발 확대에 따른 R&D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전년 대비 확대될 전망

동사는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 256억원(+70.1% YoY), 영업손실은 96.7억원(1H25 -67.7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2Q26 매출액은 16.0억원(+42.8% YoY)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영업손실은 35.7억원으로 전년동기 41.4억원 대비 소폭 축소됐다. 상반기 매출 성장은 2025년 인수 및 합병한 오브젝티보의 펫제품 매출 기여가 컸으며, 1H26 펫 제품 매출은 22.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9%를 차지했다. 반면 1H26 경상 연구개발비는 77.1억원으로 전년동기 44.5억원 대비 73.3%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지출됐어야 하는 비용이 일부 올해 상반기에 집행되면서 영업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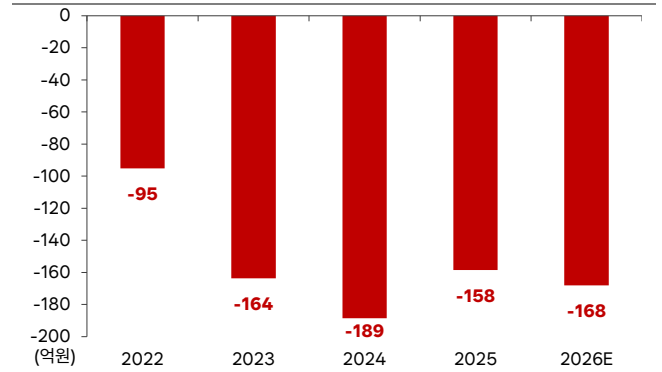
이를 기반한 2026년 연간 매출액은 45억원(+21.7% YoY)으로 추정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연간 추정치의 약 절반을 달성했고, 오브젝티보 매출이 올해부터 온기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추정치 달성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APX-115, APX-343A 등 주요 임상 프로그램이 지속됨에 따라 R&D 비용 부담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영업손실은 168억원(전년 -158억원), 지배주주 당기순손실은 166억원(전년 -163억원) 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실적 추정에는 신규 기술이전에 따른 upfront 수익은 보수적인 관점에 기반해 반영하지 않았다.

매출액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	34	37	45
증가율 (%)	569.8	937.8	10.0	21.7
건강기능식품 ODM	2.1	16.8	14.3	4
펫 제품	0	0	16.2	40
펫 상품	0.6	15.6	0.5	0.4
유전자 전달체 시약	0.5	1.1	0.4	0.6
판매관리비	165	191	172	182
판매관리비율(%)	5,500	561.8	464.9	404.4
영업이익	-164	-189	-158	-168
영업이익률 (%)	-5,055.6	-561.0	-428.4	-373.3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계속사업이익	-147	-278	-153	-154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	-121	-294	-163	-166
순이익률 (%)	-3,724.2	-874.1	-442.0	-370.0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21	-294	-163	-166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임상 de-risking과 L/O 가시성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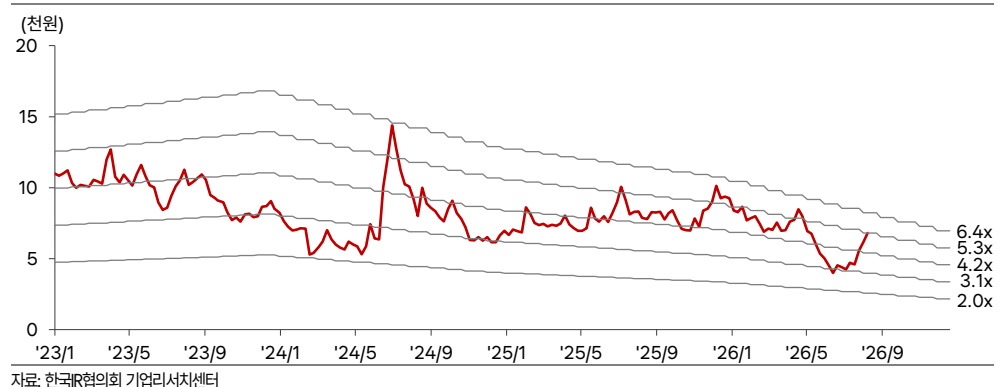
현재 PBR 상승은 주가 상승보다
BPS 하락 영향이 큰 만큼
파이프라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APX-115 임상 readout과
기술이전 성과가 확인될 경우
기업가치 재평가 여지가 존재

동사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BR 5.7x, PSR 38.6x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동사의 매출액은 본업인 신약개발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및 펩톤 사업에서 대부분 창출되고 있어, 매출액 대비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PSR로는 동사의 신약 개발을 목표하고 있는 기업가치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PSR보다 PBR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최근 3개년 PBR은 2.1~6.3x, 평균 3.9x 수준에서 거래되어 왔는데, 2026년 예상 PBR 5.7x는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적자 지속으로 인한 자본규모의 축소 및 BPS의 하락이 반영된 지표임을 고려한 다면, 현재의 PBR 수준을 기업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로 보기보다는, 자본 감소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멀티 플 상승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반대로 보면 현 주가에는 APX-115와 APX-343A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 및 사업화 가능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 시점에서 시장은 파이프라인의 잠재 가치보다는 지속되는 R&D 비용과 임상 불확실성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향후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은 주요 임상 결과를 통해 파이프라인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되고, 이를 기술이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있어 보인다. 가장 가까운 catalyst는 2026년 하반기 APX-115의 CI-AKI 임상2상이며, 긍정적인 내약성과 2차 유효성 신호가 확인될 경우 임상적 de-risking이 진전될 수 있고, 본 임상까지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L/O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후에는 2027년 당뇨병성 신장질환 2b상 결과를 통해 임상적 재현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1~2년간 이어지는 임상 readout과 기술이전 가시성이 밸류에이션의 핵심 변수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경우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파이프라인 가치가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압타바이오 PBR 밴드 차트



리스크 요인

**파트너링 및 흑자 구조 확립 전인
만큼, 중장기 현금흐름 및
추가적인 자금조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동사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First-in-class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 파이프라인 APX-115의 임상 결과 확인, APX-343A의 Keytruda 병용 임상 진입 등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본업에서 안정적인 이익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한 만큼, 연구개발 성과와 별개로 현금 소진 속도와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 동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147억원이며, 동사는 매년 100~15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비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에는 연간 약 95억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유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R&D 확대에 따른 현금 소진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외에도 단기금융상품 및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등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가용 유동성은 약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가 유지된다면 런웨이 측면에서 내년까지는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재무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파이프라인의 L/O 속도와 이에 따른 외부 자금 유입 여부에 있다.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APX-115는 KDDF 국가신약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CI-AKI 임상 이후 파트너링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선급금 유입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이 가능한 핵심 모멘텀이다. 다만 기술이전 및 흑자 전환이 지연될 경우 유상증자 등의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연구개발 성과와 cash burn 추이를 병행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0	3	34	37	45
증가율(%)	N/A	569.8	937.8	10.0	21.7
매출원가	0	2	31	24	31
매출원가율(%)	N/A	66.7	91.2	64.9	68.9
매출총이익	0	1	3	13	14
매출이익률(%)	100.0	24.2	8.5	36.0	31.1
판매관리비	96	165	191	172	182
판매비율(%)	N/A	5,500.0	561.8	464.9	404.4
EBITDA	-90	-158	-183	-154	-162
EBITDA 이익률(%)	-18,658.9	-4,889.1	-545.2	-415.4	-360.3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95	-164	-189	-158	-168
영업이익률(%)	-19,661.2	-5,055.6	-561.0	-428.4	-373.3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11	17	-88	-9	1
금융수익	16	58	52	78	48
금융비용	27	35	117	52	41
기타영업외손익	0	-5	-23	-35	-6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2	14	13
세전계속사업이익	-106	-147	-278	-153	-154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0	-26	16	10	12
계속사업이익	-106	-121	-294	-163	-16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06	-121	-294	-163	-166
당기순이익률(%)	-21,849.2	-3,724.2	-874.1	-442.0	-370.0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손이익	-106	-121	-294	-163	-166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8	-141	-122	-153	-160
당기순이익	-106	-121	-294	-163	-166
유형자산 상각비	5	5	5	5	6
무형자산 상각비	0	0	0	0	0
외환손익	0	0	2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0	-5	28	-36	-8
기타	33	-20	137	41	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	-127	129	65	7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50	-133	20	39
유형자산의 감소	1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2	-1	-2	-1	-2
기타	28	-76	264	46	4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	499	-2	-7	-18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5	-4
사채의증가(감소)	0	389	0	0	0
자본의 증가	6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	110	-2	-2	-14
기타현금흐름	0	0	-0	0	-14
현금의증가(감소)	-46	230	5	-95	-112
기초현금	66	20	250	255	161
기말현금	20	250	255	161	49

(역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04	575	349	254	104
현금성자산	20	250	255	161	49
단기투자자산	178	316	75	68	24
매출채권	0	0	9	6	7
재고자산	0	0	2	6	6
기타유동자산	6	9	8	13	18
비유동자산	357	350	425	347	324
유형자산	55	48	47	57	60
무형자산	0	1	0	11	10
투자자산	280	264	341	264	238
기타비유동자산	22	37	37	15	16
자산총계	561	925	774	600	427
유동부채	10	8	195	97	89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0	8	195	97	89
비유동부채	27	303	37	31	33
사채	0	136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7	167	37	31	33
부채총계	37	312	232	128	122
지배주주지분	524	614	542	472	305
자본금	111	117	134	140	140
자본잉여금	1,090	1,297	1,497	1,579	1,579
자본조정 등	7	7	11	15	1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685	-807	-1,101	-1,263	-1,429
자본총계	524	614	542	472	305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4.5	3.4	3.2	5.6	5.7
P/S(배)	4,909.8	633.4	45.9	68.1	38.6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474	-532	-1,212	-607	-593
BPS(원)	2,349	2,630	2,016	1,680	1,087
SPS(원)	2	14	139	137	16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20.2	-21.2	-50.8	-32.2	-42.8
ROA	-18.8	-16.2	-34.6	-23.8	-32.4
ROIC	N/A	-262.6	-576.8	-404.3	-253.6
안정성(%)					
유동비율	1,963.3	7,026.6	178.8	260.9	116.8
부채비율	7.1	50.8	42.9	27.2	40.0
순차입금비율	-37.1	-47.6	-33.4	-33.6	-2.3
이자보상배율	-2,116.4	-13.8	-5.5	-7.5	-12.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0	0.0	0.0	0.1	0.1
매출채권회전율	N/A	N/A	7.5	5.0	7.0
재고자산회전율	N/A	N/A	29.9	8.8	7.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압타바이오	O	X	X

2026년 08월 24일 기준 중기급변에 따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26	압타바이오-APX-115, 가치 검증의 시간이 온다
2024.12.06	압타바이오-NOX저해제 및 Apta-DC 플랫폼 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